

[번역]

늘 개혁하는 회사^{*1)}



요셉 라칭거 추기경(Card. Joseph Ratzinger)

전 인 걸 옮김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신부]

교회에 대한 불만

쓸모없는 개혁

진정한 개혁의 본질

도덕적 용서와 속죄: 개혁의 개인적 차원

고통과 순교 그리고 구원의 기쁨

부록 : 기자회견

교회에 대한 불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회사가 교회라는 것을 추측하는데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교회’라는 용어가 오늘

* 이 글은 2023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번역문임.

1) [역자 주] 이 글은 베네딕도 16세 교황이 신앙 교리성 장관 시절 1990년 9월 1일 ‘Rimini meeting’ 행사 중에 ‘늘 개혁하는 회사’(Una compagnia sempre riformanda)라는 주제로 대중들 앞에서 발표한 담화문과 그 이후 기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리미니 미팅’은 가톨릭 평신도 운동 단체 ‘친교와 해방’(Communion and Liberation, 약어: CL)이 1980년부터 매년 8월 말 ~ 9월 초 이탈리아 중부 리미니에서 개최하는 평신도 가톨릭 축제이다. 이 행사에서는 저명한 연사를 초청하여, 대중 및 언론이 주목할 만한 이슈에 대해서 강연을 듣고 토의하고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마련된다. 이 담화문과 기자회견 내용은 Quaderni 24 잡지에 실렸다(Joseph Ratzinger, “Una compagnia sempre riformanda. Discorso all’XI Meeting per l’amicizia tra i popoli”, Quaderni 24, 1 settembre 1990, pp.1~31).

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방어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제목에서 언급을 피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교회에 대해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이 들었고 대부분 기분 좋은 내용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말씀과 현실에 대한 평가는 나 빠졌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혁조차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교회를 진정으로 가치 있는 회사로 만들 수 있는 종류의 개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일까요?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자문해 봅시다. 왜 교회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 심지어 신자들, 또한 어제까지만 해도 고통 안에서 가장 충실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늘날 어떤 식으로든 환영 받지 못하는 것 일까요? 그 이유는 입장에 따라 서로 매우 다르며,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기준에 너무 많이 적응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다른 이들은 여전히 세상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쾌함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교회에 대한 불만은 교회가 다른 많은 기관과 마찬가지로 나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자유에 대한 갈등은 오늘날 해방에 대한 열망과 관련하여 자유롭지 못하고 소외되었다는 인식이 표출되는 형태입니다. 자유의 기원은 이미 주어진 것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외부에서 제시되면서 나의 완전한 발전을 방해하지 않는 존재를 열망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나 이런 종류의 장벽에 부딪히며, 이 장애물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가 세운 장벽은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친밀한 영역을 관통하기 때문에 두 배로 무겁게 보입니다. 사실 교회의 생활 규범은 공존이 가능하도록 충돌을 피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교통 법규와 같은 것 이상입니다. 그것들은 내면의 여정과 관련이 있으며, 내가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형성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것들은 포기의 아픔 없이는 내릴 수 없는 결정을 나에게 요구합니다. 생명의 정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거부하고 싶지 않은지? 너무나 많은 명령과 금지의 협소함 때문에 열린 지평선으로 가는 길이 우

리에게 막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생각은, 의지와 마찬가지로, 그 위대함 안에서 방해가 되지 않는지? 해방은 반드시 그러한 영적인 보호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은지? 그리고 유일한 진정한 개혁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닐지? 그러면 이 회사에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교회에 대한 불쾌함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가혹한 규율과 냉혹한 제약이 지배하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교회를 향한 침묵의 희망은 여전히 솟아납니다. 그 희망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작은 섬, 수시로 물러날 수 있는 자유의 작은 오아시스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세상 기관보다 교회에 더 많은 것을 조용히 기대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분노나 교회 안에서의 실망은 특별한 성격을 지닙니다. 그 희망 안에서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대 그레고리오 교황이 플라톤을 언급하며 말하고자 하는 동굴에서 나오는 자유와 해방의 맛을 그 안에서 음미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체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꿈에서 멀리 떨어져 특히 인간적이면서도 기관의 행정적인 풍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쓰라린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우리를 희망과 함께 교회로 향하게 한 그 꿈이었기 때문에 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꿈에 나오는 모습이 아니며, 모든 자유를 표현할 수 있고, 우리의 한계가 무너지는 공간, 어딘가에 있어야 할 유토피아를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사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정치권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처럼 — 아마도 그 세계를 향한 첫 걸음으로 — 더 나은 교회, 온전한 인류애, 형제애와, 너그러운 창조성으로 가득차고, 만물과 만인을 위한 화해의 거처를 마침내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쓸모없는 개혁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이러한 개혁이 성

공할 수 있을까요? 글썄요, 사람들은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종종 지금까지의 세대들이 이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너무 염려스러워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고 확신하는 계몽된 자들의 순진한 추정으로 치부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마침내 용기와 지성을 모두 갖게 되었습니다. 반대자들과 근본주의자들이 이 숭고한 사업에 아무리 많은 저항을 가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실행에 옮겨져야 합니다. 적어도 첫 번째 단계에 대한 매우 계몽적인 비법이 있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교회는 계몽주의로 정교화되고 이후 정치 사회 형성의 기본 규칙으로 인정받은 자유의 권리라는 유산을 아직 내적 법정에 통합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방치되었던 것을 단번에 회복하고 자유의 구조라는 근본적인 유산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정상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길은 가부장적이고 재화를 나눠주는 교회로부터 출발하여 교회-공동체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누구도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대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위에서 내려와서는 안 되고, 아니! 교회를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며, 우리가 항상 교회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교회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이며 우리는 능동적으로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 수동적인 측면은 능동적인 측면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교회는 토론, 합의와 결정을 통해 생겨납니다. 이 논쟁에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요구될 수 있는 것, 모든 사람이 여전히 신앙에 속하거나 윤리적 지침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새로운 축약된 ‘신앙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독일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전례조차도 더 이상 동일한 양식에 일치될 필요가 없고,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를 기념하는 공동체에 의해 그 자리 주어진 상황에서 생겨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더 이상 선입견이 아니라 스

스로 만든 것, 스스로를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방향 안에서 대부분의 경우 성경 말씀은 약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선택의 자유에 직면해야 합니다. 이제 전례가 지향하는 자기실현에 방해받지 않고 순응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본문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교회의 ‘자기관리’, 다른 사람들에 의해 주도 되는 것을 대체하는 이 개혁 작업에서도 곧 질문이 제기됩니다. 여기서 결정권은 정확히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어떤 근거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정치 민주주의에서 이 질문은 대의제를 통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개인은 자신을 대신해 결정을 내릴 대표자를 선택합니다. 이 임무는 임기가 제한되어 있으며, 정당 제도에 의해 내용 면에서 광범위하게 제한되며 헌법에 의해 대표 국가 기관에 할당된 정치적 행동의 영역만 포함합니다.

여기에서도 몇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소수는 다수를 따라야 하지만, 소수가 더 위대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선출한 대표가 실제로 내가 원하는 의미대로 행동하고 말할 것이라는 것이 항상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황을 더 면밀히 살펴보면 승리한 다수조차도 다시 한 번 자신을 정치적 사건의 능동적 주체로 완전히 간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적어도 시스템 전체를 위협에 빠뜨리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이 내린 결정’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다른 사람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취향에서 나온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수가 결정한 모든 것은 다른 다수에 의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결정에 의존하는 교회는 순전히 인간적인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실현 가능하고 그럴듯한 수준, 자신의 행동, 직관, 의견들의 결과물 정도의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의견이 신앙을 대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스스로 만들어낸 신앙의 정식에서, “나는 믿는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나는 생각한다”는 의미를 넘어 서지 않습니다. 결국 스스로 만든 교회는 다른 ‘자아’들에게 결코

환영 받지 못하고, 보잘 것 없는 ‘자아’의 풍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경험적인 영역으로 후퇴하고, 그래서 꿈꿔왔던 이상으로서도 해체됩니다.

진정한 개혁의 본질

혼자서 모든 것을 구축하고자 하는 ‘활동가’는 ‘찬미가’(ammiratore)의 정반대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성의 영역을 제한하여 신비를 보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만든 일의 영역이 확장될수록 우리에게 신비의 영역은 좁아집니다. 그 안에서 위대하고 해방적인 차원은 우리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으로 구성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발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서, 상상할 수 없는 것, ‘우리 마음보다 더 큰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필요한 개혁은 ‘우리’ 교회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몇 번이고 개조하고 발명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에서 오면서 동시에 순수한 자유의 쇄도인 가장 순수한 빛을 위해, 우리가 자신의 지지 구조를 계속해서 치워버린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제가 의미하는 바를 이미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와 철학에 대한 고대 개념을 취하는 미켈란젤로에게서 찾은 이미지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예술가의 시선으로 이미 그 앞에 놓인 대리석의 인도적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 형상은 자유롭게 되어 빛을 받하기를 은밀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예술가의 임무는 그저 형상을 덮고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빛을 비추어 대리석을 자유롭게 하는 진정한 예술적 행동 일뿐, 결코 자신이 작업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학 영역에 적용된 동일한 아이디어는 이미 성 보나벤투라에게서 발견되었는데, 그는 형상을 조각하는 사람, 즉 조각가와 의 비교에서 힌트를 얻어 인간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을 설명했습니다. 이 위대한 프란체스코회 신학자는 조각가가 무언가를 만

드는 것이 아니고 대신 그의 작업은 ‘제거’(ablatio)이며, 벗김에 있다고 말합니다. 진짜가 아닌 것을 벗겨내는 제거를 통해, ‘고귀한 형태’(nobilis forma)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각가인 하느님은 신성한 형상이 그 안에 거하는 동안, 인간을 단지 거친 돌덩어리로 보이게 하면서 동시에 그의 존재의 진정한 측면을 가리고 있는 모든 찌꺼기로부터 그를 해방시키십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이 그 안에서 빛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각가가 행하는 정화를 환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 형상에서 교회 개혁을 위한 지침 모델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모든 시대에 설교하고 행동하기 위해 항상 새로운 인적 지원 구조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법적 구성을 가진 교회 기관들은 나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낡아가고, 자신을 가장 필수적인 것으로 내세울 위험이 있으며, 따라서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불필요해진 비계²⁾처럼 계속해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개혁은 항상 새롭게 ‘제거함’(ablatio)입니다. 즉, 제거함으로써 신부(교회)의 얼굴,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 계신 고귀한 형상이자 주님이신 신랑의 얼굴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 신학’(teologia negativa)과 같은 이러한 제거는 전적으로 긍정적인 목표를 향한 길입니다. 그래야만 신성이 침투할 수 있고, 우리가 바라는 순수한 공동체이자 ‘집합’(congregatio), 즉 ‘나’는 더 이상 다른 ‘나’에 대항하지 않고, ‘자아’가 다른 ‘자아’에 대항하지 않는 집회, 모임, 정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일부인 신뢰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모든 선하고, 순수한 것을 상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관대하신 아버지의 말씀은 질투심 많은 큰아들에게 모든 자유와 실현된 모든 유평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 줍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2) [역자 주] 비계(飛階): 건축공사 때에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 가설물.

[...]”(루카 15,31, 참조: 요한 17,1).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은 ‘제거’이며, 그 자체로 ‘집합’이 됩니다. 이 기본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접근 방식에서 우리는 ‘활동가’와 ‘찬미가’를 대조했습니다. 우리는 후자를 더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조는 무엇을 뜻합니까? 항상 무언가 하고 싶은 활동가는 자신의 활동을 우선시합니다. 그는 작업 대상이 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영역으로 자신의 지평을 제한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사물, 대상만 바라봅니다. 그의 활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보다 더 큰 것을 전혀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는 세상을 경험적인 것으로 제한하기에 단절됩니다. 활동가는 자신을 위해 감옥을 짓고 이에 대해 큰 소리로 저항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탄은 경험적인 것, 단지 이 세상 안에 있는 한계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것은 영원하고, 무한하신 분의 지평을 열어주는 믿음의 행위를 위해 인간을 준비시킵니다. 한계 없는 것만이 우리의 본성에 충분하고, 무한한 것만이 우리 존재의 소명에 적합합니다. 이 지평이 사라지면, 자유의 모든 잔여물은 너무 작아지고 그 결과로 제안될 수 있는 모든 해방은 결코 충분하지 않은 쓸모없는 대체물일 뿐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첫 번째 근본적인 제거는 언제나 신앙 행위 그 자체입니다. 이 믿음의 행위는 유한한 것의 장벽을 허물고 무한한 것에 도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줍니다. 믿음은 시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멀리 무한한 땅으로’ 인도합니다. 현대의 과학적 사고는 우리를 점점 실증주의의 감옥에 가두어 실용주의로 몰아넣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었고, 우리는 달에 갈 수 있고, 더 멀리 우주의 무한 속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적이거나 실현 가능한 실제 경계는 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같은 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알베르 카뮈는 황제 칼리굴라의 모습에서 이러한 형태의 자유의 부조리를 묘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처분에 달려 있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 좁습니다. 점점 더 많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는 광적인 욕망 속에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달

을 원해, 달을 쥐!” 한편, 이제 어떻게든 달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땅과 하늘, 하느님과 세상 사이의 진정한 경계가 열릴 때까지, 달조차도 땅의 또 다른 조각일 뿐이며, 거기에 도달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자유와 충만함에 한 걸음도 더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근본적인 해방은 영원하신 분의 지평 안에 머무는 것, 우리의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자체는 그 모든 웅장함과 넓이에 있어서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본질적인 개혁입니다. 신앙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회에서 만든 제도들을 항상 시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신앙의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교회 내 단체 생활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 고위층에서도 교회 활동에 더 많이 관여할수록 더 그리스도적이라는 생각이 여기 저기 널리 퍼져 있습니다. 바쁘게 활동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교회적 요법이 장려되며, 이는 개개인에게 위원회를 배정하거나 교회 내에서 적어도 일부 책임을 지정하는 것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항상 교회 활동이 있어야 하고, 교회에 대해 말하거나 교회를 위해 또는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만을 비추는 거울은 더 이상 거울이 아니며, 먼 지평선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대신 관찰자와 세상 사이에 스크린처럼 서 있는 창은 그 의미를 잃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 단체 활동에 끊임없이 참여하면서도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신 교회 협의회에 참석한 적도 없고, 교회 정치에 관여한 적도 없고, 시노드에 참여하거나 투표한 적도 없지만, 단순히 말씀과 성사로 살고 믿음에서 오는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인간적인 교회가 아니라 더욱 신성한 교회이며, 그래야만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인간에 의해 행해진 모든 것은 봉사의 순수한 성격을 인식하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 앞에서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로부터 정당하게 기대하는 자유는 다수결의 원칙을 도입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소의 소수보다 가능한 최대의 다수가 우세하다는 사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고, 주님이시며 자유이신 분의 말씀과 뜻에 우리 모두가 놓여 있음을 인정함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직무의 수행자들이 성사가 권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분의 인격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교회 분위기는 좁아 들고 숨이 막힐 것입니다. 더 큰 책임과 자기 헌신이 일치하는 곳에서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주님께서 통치하시므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유효합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2코린 3,17).

우리가 더 많은 시스템을 구축할수록, 심지어 가장 현대적인 장치일지라도, 성령과 주님을 위한 공간은 줄어들며, 자유도 훨씬 더 적어집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의 모든 차원에서 거리낌 없이 양심 성찰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수준에서의 양심 성찰은 매우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와야 하며, 교회의 진정한 얼굴을 다시 한 번 드러나게 하는 ‘제거’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 감각을 주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집에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도덕적 용서와 속죄: 개혁의 개인적 차원

계속 진행하기 전에 지금까지 강조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정화와 쇄신이라는 해방 행위로서의 이중 ‘제거’ 활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담론은 유한한 것의 벽을 허물고 영원한 차원을 향한 시선과 그 시선뿐만 아니라 그 길도 자유롭게 하는 신앙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믿음은 사실 인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 벽을 부수는 것뿐만 아니라, 동굴에서 빠져나오

는 구원의 손길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주어진 시대에 삶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교회의 본질적인 기본 체계가 항상 새롭고 구체적인 발전과 구성을 필요로 한다는 결과를 이끌어 냈지만, 이러한 구상이 본질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사실 교회는 세상의 어느 단체처럼 우리를 바쁘게 하고 살아 있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원한 삶에 근접할 수 있도록 존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까지와 같이 더 이상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수준에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영역에 적용해야 합니다. 사실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면 ‘제거’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항상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고귀한 형태’, 즉 우리 안에 새겨진 하느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는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타락한 아담의 형상 즉, 인간의 형상만을 봅니다. 우리는 그 형상 위에 자리 잡은 먼지와 그 잔해를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느님의 형상을 손상시키는 것을 제거하는 진정한 조각가가 필요하며, 진정한 개혁의 핵심인 용서가 필요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교회 형성의 세 가지 결정적인 단계에서 죄 사함이 본질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선 베드로에게 열쇠를 넘겨주는 일을 살펴봅시다. 여기에서 말하는 묶고 풀고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부여된 권능의 핵심은 들어오게 하고, 맞이하고, 용서하라는 명령입니다(마태 16, 19). 그리스도의 몸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는 최후의 만찬에서도 같은 내용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마태 26,28) 당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가능해 졌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주님은 열한 제자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써 평화의 친교를 이루셨습니다(요한 20,19-23). 교회는 ‘의사가 필요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회심한 죄인들이 용서의 은총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총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니다.

신약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용서는 그 자체로 마법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잇는 척하거나, ‘아닌 척하는 것’도 아니며, 조각가가 행하는 것처럼 완전히 실제적인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없애는 것은 실제로 무언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용서의 실현은 보속의 발생으로 나타납니다. 용서는 이런 의미에서 능동적이면서도 수동적인 과정입니다. 하느님의 강력하고 창조적인 말씀은 우리 내부에 변화의 고통을 일으키고 따라서 능동적인 변화를 이끌어 냅니다. 용서와 보속, 은총과 개인적 회심은 모순되지 않고 하나의 동일한 사건의 두 얼굴입니다. 능동성과 수동성의 융합은 인간 실존의 본질적인 형태를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창조는 우리가 창조되고, 하느님의 창조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시대 영적 위기의 핵심이 용서의 은총이 흐려지는데 뿌리를 두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 현재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해 봅시다. 윤리적 차원은 다시 존중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적 진보가 윤리적 성장에 상응하지 않는다면 의심스럽고 궁극적으로 파괴적이라는 것이 실제로 명백해졌습니다. 윤리적 쇠신 없이는 인간성과 인류의 개혁이 안 된다는 것이 인정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적 요청은 매개 변수가 토론의 짙은 안개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순수하고 단순한 윤리를 견딜 수 없고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현실은 인간에게 반항하려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죄를 낳는 ‘법’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유효하고 참된 용서가 인정되지 않거나 믿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개인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없도록 윤리가 윤곽을 그려 놓고 있습니다. 대체로, 오늘날의 윤리적 논의는 인간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그 가능성에 대한 조건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파스칼의 신랄한 문구가 떠오릅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 주시는 선

조들을 보라!”(Ecce patres, qui tollunt peccata mundi!). 이 ‘윤리주의자들’에 따르면 죄의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죄의식을 없애는 이 방법은 너무나 값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방된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며, 죄가 존재하며, 그들 자신이 죄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이미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당신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대신에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고 따라서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용서가 있을 때만 진정성을 유지하며,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고 공허한 조건부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대가’가 있고, ‘교환 등가물’로 죄가 보상되고, 속죄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존재합니다. ‘윤리-용서-속죄’ 사이에 존재하는 순환성은 어느 한 요소가 누락되면 전체도 무너지는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순환이 끊어지지 않고 존재하느냐에 따라 인간을 위한 구원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토라, 모세오경에서 이 세 가지 요소는 불가분의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구약 정경에 속하는 이 촘촘한 중심으로부터 계몽주의 방식으로 향상 유효한 도덕법을 분리하고 다른 모든 것을 과거 역사에 맡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약을 실현하는 이러한 윤리적 방식은 필연적으로 실패로 끝납니다. 바로 이 지점에 오늘 날 생각보다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는 펠라기우스의 오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율법의 일부만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성취하셨고, 따라서 율법을 근본부터 새롭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그분 자신이 속죄인 동시에 용서이시기 때문에 우리 윤리의 유일하고 확실하며 타당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속죄와 용서로부터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론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이 성취되었으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제시된 실제적이고 성취 가능한 요구 사항이 되

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중심에서 시작하는 켈신의 길은 개인, 교회 전체, 그리고 인류를 위해 항상 새롭게 열려 있습니다.

고통과 순교 그리고 구원의 기쁨

이에 대해 이야기할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모든 켈신에 있어 개인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참회와 주님을 따르는 길을 통한 내 안의 용서와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바로 가장 친밀한 사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치로 결합할 수 있고 공동체 켈신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형상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먼지와 불결함이 제거되면, 그리하여 나 또한 하느님의 형상인 다른 이와 진정으로 닮아 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무한하신 하느님의 형상이자, 창조된 모든 이의 모델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 과정을, “옛 형상은 지나가고 새로운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20)라고 매우 과감한 용어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죽음과 탄생의 과정입니다. 나는 고립된 존재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동체 주체로 환영받으며, 나의 ‘나’는 그리스도의 ‘나’에 통합되어 나의 모든 형제들의 ‘나’와 결합됩니다. 이러한 개인의 깊은 켈신에서 시작해야만 교회가 탄생하고, 삶과 죽음이 일치하고 지탱되는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에만 우리는 교회를 적절한 크기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특정 장소에 모이는 활동가들의 작은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또한 단순히 주일에 성체성사를 거행하기 위해 모인 큰 무리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교회는 교황, 주교, 사제, 성사 직무를 부여 받은 사람들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명명하는 모든 이들이 교회의 일부이지만, 신앙을 통해 관계 맺은 모임의 범위는 넓고 심지어 죽음을 넘어섭니다. 아벨과

아브라함, 그리고 구약성경이 이야기하는 희망의 모든 증거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주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그의 사도들을 지나, 토마스 베켓과 토마스 모어를 거쳐 막시밀리안 콜베, 에디트 슈타인, 피에르 조르쥬 프라사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인들이 이에 속합니다. 여기에는 하느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 없는 모든 무명의 신앙인들과,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히브 12,2) 그리스도를 향한 희망과 사랑으로 마음을 뺀 모든 시대와 장소의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교회 안팎에서 그와 우리의 여정을 결정하는 것은 우연히 형성되는 다수가 아닙니다. 성인들은 우리의 방향을 지시하는 참되고 결정적인 다수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인성을 신성으로, 시간을 영원으로 번역합니다. 그들은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 곁을 걸어가는 인류의 스승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통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가치 있게 만들지 못하는 세계관은 아무 소용이 없고, 그것은 존재에 대한 결정적인 질문이 등장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실패합니다. 고통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말 외에 고통에 대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아픔을 완화하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없는 인간의 삶은 존재하지 않으며, 고통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자체로 인간을 성숙하게 만드는 정화를 회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와의 친교 안에서 고통은 나 자신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가리는 찌꺼기를 나에게서 없애주시는 ‘제거의 과정’으로서, 자신을 넘어 전체를 위해서도 유용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바오로와 함께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콜로 1,24). 에디트 슈타인과 함께, 오늘날의 성찰로 우리를 인도해 준 토마스 베켓³⁾은 여전히 우

리가 마지막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격려합니다. 생명은 생물학적 존재를 뛰어 넘습니다. 더 이상 죽을 이유가 없는 곳에서는 삶도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신앙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마음을 더 크게 만들어 준 곳에서 바오로 성인의 다른 구절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로마 14,7-8).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 속한 모든 사람들과의 교제에 더 뿌리를 내릴수록, 성바오로가 표 현한 빛나는 확신에 의해, 우리 삶은 더욱 지탱될 것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로마 8,38-39).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참 생명을 향한 여정에서 친교로 성장하고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거처할 곳이 많은 큰 집이 되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그 안에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구절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 [...] 시온의 산들 위에 흘러내리는 헤르몬의 이슬 같아라. 주님께서 그곳에 복을 내리시니. 영원한 생명이여 라”(시편 133,1;3).

3) [역자 주] 토마스 베킷(Thomas Becket, 1119~1170)은 1154년에 부제로 서품 받고, 1155년부터 1162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1162년부터 1170년 사망할 때까지 캔터베리 대주교로 직무를 수행했다. 그는 교회 관련 법안(특히, 성직자를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속 법정에서도 재판할 수 있도록 한 클라렌던 헌장)을 놓고 국왕 헨리 2세와 갈등을 빚었고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왕의 추종자들에게 살해당했다. 그가 죽은 직후 1173년 교황 알렉산델 3세에 의해 시성되었고, 가톨릭 교회와 영국 성공회에서 성인이자 순교자로 존경받고 있다. 성 토마스 베킷은 살해되기 전에 암살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다. “예수님의 이름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나는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For the name of Jesus and the protection of the Church, I am ready to embrace death).

부록 : 기자회견

요셉 라칭거 추기경은 회견 말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녹취록을 공개합니다.

Tgl: 오늘날 진정으로 ‘보편적인’ 교리 문답을 작성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것은 공동된 철학적, 인간적 언어가 부족한 탓에 모두가 공유하는 세계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기술에 대한 지적 획일주의가 존재하지만 동시에 근본적인 세계관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에 대한 글로벌 비전,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단일 해석 언어를 언급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신스콜라주의는 더 이상 우리에게 공통적이고 심오한 사고방식의 비전을 제공하지 못하며, 주해의 문제는 성경에 대한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신앙의 언어도 재구성해야 합니다. 비동시성, 즉 인류 문화의 여러 시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맥락에서 우리 시대의 모든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언어를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교회 안에서 인간의 실제적이고 영적인 의사소통을 더욱 가능하게 하고, 참되고 심오한 신앙의 친교를 이루기 위해 더욱 필요한 일입니다.

Corriere della Sera: 최근 몇 년 동안 ‘친교와 해방 모임’은 정치적 관점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교회 내에서도 대조와 토론,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행사와 이를 장려하는 ‘CL 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는 이 모임에 대한 선례를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모임의 운동과 역사에 대한 저의 비전을 모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세상과 교회의 실제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쟁이 벌어지

는 곳에서는 모순과 어려움, 심지어 오류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가치 있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인간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일하고 교회 삶을 경험하는 곳에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도 가시화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꺼버리고 숨기는 것은 위험할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함께 진리를 찾고, 상대방의 신실함과 진정성을 믿으며, 오류가 있을 경우 기꺼이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제가 아는 이 모임의 매우 긍정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숨기지 않고 모든 상황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토의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현실주의와 함께 우리의 상황에 적합한 그리스도교적 반응을 정확하게 찾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또한 우리 자신을 바로 잡고 진정으로 배우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 운동에 관해서는 교회의 생명력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조직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 실현된 신앙에서 탄생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추상적인 구상을 한 다음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첫 번째가 생명이고, 그 다음 이 생명 표현의 법적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형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의 생명력이며, 항상 모든 시대의 교회 신앙과 깊은 조화를 이루는 깊은 신앙을 오늘날의 삶과 문화 안에서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어려운 실험이지만 더욱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CL의 현실에는 실제 교회와 함께 믿으려는 깊은 믿음, 그리고 오늘의 상황 안에서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육화하고 노력하는 깊은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수도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 중 누구도 오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친교 안에서 추구하고, 배우고, 살고, 교회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Gr2: 이번 모임의 슬로건 중 하나는 “자선은 행동이 됩니다”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진술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것은 본질적으로 자선을 통해 작용하는 믿음에 대해 말하는 성 바오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이데올로기적 입장이 아니며, 세상과 하느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자선은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태도, 즉 사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의 완전성 안에서 인간의 전인적 태도이며, 필연적으로 교회와 세상을 향한 사랑의 활동으로 번역된다는 것이 성경의 통찰력입니다.

Il Sabato: “펠라기우스의 오류는 오늘날 언뜻 보기보다 더 많은 추종자를 가지고 있다”는 당신의 진술을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현대 철학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언론사에 대해 타당한 글을 썼고, 저도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편으로 인간 사회의 한 요소로서 윤리를 재평가한다는 매우 긍정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수한 윤리주의가 남아 있다면 그것은 또한 인간들은 자의적이고, 절대주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자기건설이 되어 참된 윤리를 창조하지 못하는 오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없는 곳에서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유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윤리가 교회의 신앙과 오늘날의 사고방식 사이의 교두보 역할을 하도록 하는 유혹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윤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윤리의 제도과 보증으로 제공하지만 신비를 제시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신비에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호한 것들을 생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즉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교는

축소되고 윤리는 재건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의 선포를 윤리로 축소하려는 그리스도교 내의 유혹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결국 윤리 자체도 소진되게 만듭니다.

Tv polacca: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서방에 크게 문을 열었지만 동시에 서방 국가를 지배하는 실용적 유물론에서 비롯된 새로운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론적 유물론에 기초한 공산주의의 오만한 시대에 초인적인 노력으로 보호된 가치를 파괴하려는 만연한 세속화와 소비주의에 맞서 우리는 어떻게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은 교황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이 심오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유럽 시노드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한편으로 동유럽은 지난 40년 동안 마르크스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유물론에 맞선 투쟁과 그 반대편에서 얻은 영적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동유럽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는 소비주의적 물질주의와 윤리적 절대주의라는 새로운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동·서방이 함께 이 40년의 경험을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하고 오늘날의 도전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동유럽과 서유럽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깊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40년간의 투쟁의 결실을 잃지 않고 동·서방 모두에 그리스도교적 자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대학 교육과 개인의 모든 영역과 수준에서 협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세히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첫 번째 단계는 무엇보다도 교회 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에서도 이러한 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의 협력,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한 협력의 수단이자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운동들입니다.

Il Giorno: 오늘 당신께서는 교회에는 항상 구조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구조가 노후화되어 복음 메시지 전달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톨릭 행동’⁴⁾과 같이 이탈리아 교회가 역사적으로 채택한 인적 지원 구조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톨릭 행동’이나 이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 이탈리아 상황에 관한 한, 당신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것들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교회의 모든 현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의 지시가 상당히 개방적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로마에 온 지 8년이 되었지만 로마는 매우 특별한 세계, 특히 교황청이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교회를 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탈리아 교회와 논쟁을 벌이고 싶지 않았고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저는 한편으로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언급한 것처럼 이 ‘가톨릭 행동’ 기구는 1920년대에 만들어졌고, 공의회 이후에 우리는 많은 새로운 구조, 다양한 수준의 많은 평의회를 만들었고 여전히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구들이 현재로서는 유용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구조는 주된 목적에 도움이 되는 부차적인 것이며, 결국 사라질 수 있어야 하고, 말하자면 교회를 대체할 수 없어야 함을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부서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양심성찰을 촉구했으며, 이는 로마 교황청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공의회 이후 우리는 이미 두 차례의 교황청 개혁을 경험했으며 세 번째 개혁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황청을 개혁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라고 같이 말하는 것은 너무 쉬운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수준을 고려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의회 이후에 생성된 모든 평의회가 모두 정말 유용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일부 독일 교구에서 일부 평의회를 축소하

4) [역자 주] ‘이탈리아 가톨릭 행동’(L’Azione Cattolica Italiana, 약어 AC 또는 ACI)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증언, 자선 활동 그리고 다양한 사회 계층과의 협력을 목표로 시작된 가톨릭 평신도 단체이다. 1868년에 기원이 되어, 회원수 100만 명 이상의 가톨릭 신자들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고 어떤 연합회를 통합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행정 및 관료주의의 ‘골격’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세상 안에서 자선의 실현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구조에만 너무 몰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조를 확대하거나, 어떻게 재조정 할지 관심을 갖는 지점에 도달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안에서 증거하기위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는 목적에 더 이상 이바지하려하지 않습니다. 구조는 더 이상 의도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Radio popolare: 저는 당신의 말씀에서 교회 운동의 역할을 어느 정도 재고해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운동의 예외적인 ‘개혁 가능성’되어야 하는 걸까요?

‘가톨릭 행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처럼 운동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생명 보다는 법적인 구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저는 뮌헨 대주교로서의 경험 덕분에 독일의 상황에 대한 제 식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선이 있고 재화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일부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처음에 법적인 현실로 만들어진 구조이며, 그런 다음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으려 합니다. 그것은 인간적 요소를 약간 왜곡하고 더 이상 증거 할 수 없는 교회 자체의 자기 점유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운동은 구조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살아있게 됩니다. 그들은 생명으로부터 태어나고, 그리고 나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구조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정확히 이 우선 순위 때문에 운동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있고 언론인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구조화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구조부터 우선하고 생명을 찾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운동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도 생명의 충동으로 교회 생활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려움이 생명의 어려움이며 따라

서 건전하고 좋은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법적인 공식도 있지만 구조가 있는 곳에 반드시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의지로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Il Giornale: 이탈리아 가톨릭계에 정치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항상 가톨릭 신자들을 대표해 온 정당이 점점 퇴색하고 이미지를 잃고 비그리스도교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산산조각이 나고 혼란스러운 이 순간에 당신께서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논쟁을 어떻게 보십니까? 작은 질문입니다만, 당신께서 앞으로 2년 안에 당신의 임기를 마칠 의향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두 질문 사이의 연관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제 사임 문제에 대한 질문은 정당 분열에 관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아시아시피 외부인이 한 국가의 내부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항상 어렵고 위협하며 그러한 간섭은 환영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정당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유럽의 틀에서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가톨릭 신자들이 정치 세계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럽 차원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합니다. 한편으로 교회가 결코 특정 정당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다른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맥락에서 자신을 보는 것이 항상 교회의 목적이자 의도여야 합니다. 교회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정치적 선택에 개방되어 있습니다. 비록 교회는 인간의 양심을 수호할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를 하지 않더라도, 윤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윤리적 토대를 가져야 하는 정치에 대해서는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적어도 다양한 정당들의 근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점에 관해서는, 그리스도교 정당은 당연히 이러한 합의를 위해 일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주된 관심은 그리스도교 정당의 특정 정치가 아니라(물론 관심을 갖긴 하지만) 이 정당이 사회 안에서 인간적이고 그리스도적 합의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정당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 정치 세계에 그리스도교적 비전을 제시하려는 의도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교적 가치를 배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세계에서 이해되는 기본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자신의 정당을 넘어선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태아의 생명과 태아를 보호하는 것이 순전히 그리스도교인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교 정치인은 그것이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당을 넘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정확히 존재하는 기구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교 정당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교황님께 맡깁니다. 제 결정이 아닙니다.

Asca: 신학자들이 당신이 속한 신앙 교리성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곧 ‘콘칠리움’(Concilium)⁵⁾ 잡지 창간 25주년을 기념하는 신학자 회의가 열립니다.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낼 건가요 아니면 질책하는 메시지를 보내실 건가요?

최근 이 주제에 대한 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우리는 신학이 교회의 살아 있는 기능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신학자들을 상대로 집단적인 비난이나 충돌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진정으로 매우 중요한 교회의 소명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신학자, 즉 학문

5) [역자 주] Concilium은 1965년에 창간된 진보 성향의 가톨릭 신학 잡지이다. 칼 라너, 이브 콩가르, 한스 쾅, 요한 밥티스트 메츠 등이 창립자로 참여했다. Concilium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 안에서 신학적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가톨릭 유산에 뿌리를 두고 다른 그리스도교 전통과 세계 종교에 개방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런 진보적 성향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모여 1972년에 창간한 Communio 잡지의 자매이자 라이벌 간행물로 간주된다. Communio의 창간 멤버로는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살, 앙리 드 튀박 그리고 요셉 라칭거 추기경 등이 있다.

적 수준의 사상가는 항상 단순히 집단의 일부가 아니며 한 한 인격 체입니다. 이를 집단주의로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프로필을 가진 사상가가 될 용기를 키워야 합니다. 제가 언급한 지침은 신학을 장려하는데, 신학은 교도권의 지적인 무기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본래의 기능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친교 안에서, 따라서 교도권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성취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본성입니다. 회의에 관해서는 어떠한 메시지도 요청 받지 못했습니다. 평가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vvenire: 가톨릭 투표와 관련하여 당신은 또한 몇몇 경우(생명 수호)를 예로 들었는데, 가톨릭의 노력은 종교적 신념을 넘어 합의를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탈리아 사회에서는 가톨릭 신자들이 옹호하는 이러한 가치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사실상 반대입니다. 무엇을 할 것을 권장하십니까?

저는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도 마찬가지이며 인간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비전의 상실, 인류와 인간 양심의 위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이것이 신비한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증거의 문제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확신을 증언할 임무가 있습니다. 인간은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양심을 다시 일깨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가톨릭계를 훨씬 뛰어넘는 범위에서도 생명 존중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진지하고 근면하며 인내심 있는 신념의 작업이 수행 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에서 그리스도교 정당들조차 현재 위태로운 현실을 절반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 Stampa: 펠라기우스에 대해 말씀하신 것들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펠라기우스주의, 즉 공통의 가치에 대한 평준화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주 당연합니다. 5세기에든 어떤 증거나 진리의 조각이 없었다면 펠라기우스주의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의 세부기록은 너무나 오래된 일이지만, 펠라기우스의 수도원 생활(그리고 나서 이탈리아 남부의 교구 주교의 생활 안에서 에클라눔의 율리아누스)을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방어 가능한 요소를 옹호했지만, 결국에는 인간이 그 자체로 완전한 도덕성을 가지고 스스로를 세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는 신비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여, 용서와 자신의 삶의 현실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시대에 매우 열렬하고 매우 어려운 논쟁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상황은 비슷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교화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합리주의적이고 기술적인 세계에서는 도덕법과 윤리 규범의 필요성은 분명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신비에는 거의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성취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완전성을 재구성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용서 받고 우리 삶에 들어오는 이 새로운 요소를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어려운 반면, 오늘날의 인류에게 도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비의 지평을 다시 열고 오직 이런 방식으로만 모든 사람을 위해 인간의 증거가 재구성될 수 있을 수 있음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낙태에 관한 논의에서 보았듯이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실현된 삶을 통해 신비와 용서의 차원의 현실도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생생한 증언 없이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의 경험이 부족한 지적인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커다란 유혹과 같이 순전이 지적 수준에만 머무른다면 펠라

기우스가 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친교와 해방’과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는 생명의 차원을 재발견하지 못한다면 신학은 지성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Europeo: 제가 보기에 당신의 담론은 권위의 원칙, 따라서 교황의 순종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 신학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근 몇 세기 동안 교회에서 그다지 통용되지 않았던 개념입니다.

제가 모든 차원의 양심 성찰에 대해 말할 때, 저는 단지 권위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 삶의 기초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행정상 실재를 만들고 우리의 구조에서 실현되는 행동주의는 교회를 쇠신하지 못합니다. 신성한 ‘제거’에 우리 자신을 개방해야만 우리는 올바른 의미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부정 신학은 ‘서방의 정신’으로 특징지어지는 최근 몇 세기 동안 서구 신학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동방 교회와의 대화를 통해 이러한 차원을 회복해야 합니다.